

# ‘7전8기’ 한국 패럴림픽 사상 첫 금 도전



평창 동계패럴림픽 49개국 6개 종목 570명 열전...한국 전 종목 출전

평창 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갈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9일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10 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오는 18일까지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 일원에서 진행되는 패럴림픽은 역대 패럴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전 세계 49개국, 57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6개 종목(알파인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에서 80개의 금메달을 다툰다.

한국은 6개 전 종목에 걸쳐 역대 가장 많은 선수 35명이 출전하고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 획득과 종합 10위를 목표로 내 걸었다.

한국의 동계 패럴림픽 출전 사상 첫 금메달은 패럴림픽 개막식 하루 뒤인 10일 바이애슬론 7.5km 남자 좌식 부문 경기에서 수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메달 기대주는 한국 장애인 노르딕스

키와 바이애슬론의 간판인 신의현(38)이다. 26세이던 2006년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신의현은 재활을 위해 시작한 휠체어농구와 노르딕스키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2000년 초반부터 국제대회의 강자로 떠올랐다.

이번 패럴림픽의 시험 무대였던 지난달 핀란드 부오카티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 월드컵에서는 바이애슬론 7.5km 남자 좌식부문에 26분08초01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2위로 들어온 우크라이나의 레드 타라스는 33초 차로 따돌릴 만큼 독보적인 우승이었다.

특히 메달 경쟁자인 러시아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현이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한국의 동계패럴림픽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 후보도 신의현이다.

신의현은 대회 중반인 13일 바이애슬론 12.5km 남자 좌식부문에 은메달에 도전

한다.

지난 1월 독일 오베리드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노르딕스키 월드컵 바이애슬론 12.5km 남자 좌식부문에 2위를 차지했던 신의현은 이번 평창 대회에서도 무난히 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당일 컨디션만 좋다면 내심 금메달까지 노려보겠다는 심산이다.

한국 선수단의 메달 시나리오상 다른 메달 후보는 휠체어컬링과 장애인 아이스하키다.

휠체어컬링은 폐막식 하루 전날인 17일 결승전과 3-4위전을 치른다. 장애인 아이스하키는 폐막식 당일인 18일 결승전과 3-4위전이 예정돼 있다.

스킵 서순석을 비롯해 리드 방민자, 세컨드 차재관, 이동하, 서드 정승원 등 성(姓)이 다른 다섯 명으로 구성된 ‘컬링 오벤저스’로 불리는 컬링 대표팀은 지난달 열린 브리티시오픈에서 전승으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강원 강릉컬링센터에서 대한민국 컬링대표팀 방민자가 스톤을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휠체어컬링 ‘영미~’ 대신 ‘민자~’

전남 출신 4인 출격

장애인 아이스하키 정승환

휠체어컬링 정승원·방민자

스노보드 박항승 출전

9일 개막하는 2018 평창 패럴림픽에 전남 출신 선수 4명이 금빛메달을 향한 경쟁을 벌인다.

한국 장애인 아이스하키의 간판 정승환(32·강원도청)과 휠체어컬링의 방민자(여·55), 정승원(59·이상 서울시), 스노보드 박항승(31)이 그들이다.

‘로켓맨’, ‘빙판 위의 메시’로도 불리며 세계 장애인 아이스하키계를 호령하는 정승환은 신인 도초도 출신이다.

5살 때 집 근처 공사현장에서 상수도 관 파이프에 깔리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정승환은 2004년 도초고등학교 졸업 후 평택 한국복지대학 재학 시절 아이스하키를 시작했다.

167cm, 53kg의 왜소한 체격에도 빠른 몸놀림으로 몸집 큰 외국 선수들과 상대하며 대회 때마다 골과 어시스트를 책임지는 등 이번 패럴림픽도 ‘키플레 이어’로서의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체코, 일본과 B조에 속한 한국은 오는 10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일본과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남녀혼성으로 구성된 휠체어컬링에서 리드를 맡고 있는 방민자와 서드의 정승원은 각각 장성과 목포 출신이다.

1993년 차량 전복사고로 하지마비 장애를 당한 방민자는 론볼로 재활을 하다 2004년 컬링으로 전향했다.

2009년 US오픈 2위, 2012년 세계선수권에서 차례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방민자는 2016년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동메달, 2017년 제14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혼성 휠체어컬링 WC-F 금메달을 따내는 등 물오른 기량으로 이번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국가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20여 년 전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당한 정승원도 론볼 선수로 활동하던 중 휠체어컬링으로 돌아왔다.

한국 대표팀에서 최고령 선수로 등록된 정승원은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US오픈, 캐나다오픈 등 전 세계를 누비며 경험을 쌓았고, 지난해 6월 패럴림픽 대표로 선발됐다.

방민자와 정승원은 지난 2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2018 브리티시오픈에서

이번 패럴림픽에 함께 나서는 서순석(스킵), 차재관, 이동하(이상 세컨드)와 출전해 예선 5경기를 포함, 결승까지 전 경기 우승을 거두며 패럴림픽의 메달전망을 밝게 했다.

이들은 10일 오후 미국과의 예선전을 시작으로 메달 경쟁을 펼친다. 한국은 12개국 풀리그에서 7승 이상을 거두면 준결승에 올라 메달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의족 스노보드’로 화제를 모았던 박항승은 무안과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4살 때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박항승은 스노보드공인 아내의 권유로 2012년 처음 스노보드를 접했다.

2015년 스노보드 슬로프에서 결핵을 치료하는 등 스노보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박항승은 2016년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이후 201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올림픽에서 남자 밴크드 슬라롬 15위, 남자 스노보드 크로스 16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실력을 쌓고 있다.

박항승의 스노보드 경기는 12일과 16일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어느 자리든 최선→내 자리 욕심 ‘박정수의 변화’



‘제2의 임기영’ 꿈꾸는 KIA 박정수

프로 첫 해 활약 후 입대

전역 후 복귀 캠프 MVP

부상 임기영 마운드에 단비

KIA 타이거즈의 ‘잠수함’ 박정수(사진)가 2018시즌의 깜짝 스타에 도전한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렀던 KIA 선수단은 8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37일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단의 MVP 중 한 명은 사이드업 박정수다.

박정수는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가장 많은 5경기에 나와 12이닝을 소화하며 1.5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그의 활약이 더 반가운 것은 또 다른 사이드업이자 지난 시즌 ‘셋별’에서 KIA의 든직한 선발로 자리를 한 임기영이 어깨 통증을 조만 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팀 상황과 캠프 성과를 바탕으로 “어느 자리에서든 열심히 하겠다”던 박정수의 마음도 “욕심을 내보겠다”로 바

뀌었다.

지난 마무리캠프 때까지만 해도 박정수는 고된 많은 ‘최연소 예비역’이었다.

2015년 야탑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1996년생의 그는 프로 첫해 19경기에 나와 42.1이닝을 소화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김기태 감독의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첫 시즌을 마친 뒤 바로 경찰청에 입대하면서 2년의 시간을 떠나있었다. 지난해 가을 제대를 하고 오면서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마음 같지 않던 마무리 캠프였다.

밸런스가 흐트러지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마무리 캠프를 보냈던 박정수다.

박정수는 “마무리 캠프 때보다 훨씬 좋았다. 형들이 그때는 투수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좋아졌다고 농담을 한다(웃음)”며 “마무리 캠프에서도 밸런스를 잡으려고 주력했었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밸런스에 가장 신경을 썼다. 또 골반 운동과 코어 운동 위주로 훈련을 많이 했다”

고 말했다.

‘폼 찾기’를 목표로 스프링캠프에 나섰던 박정수는 성공적으로 복귀 시즌 준비를 끝냈다. 힘은 더 붙었다.

박정수는 “예전과 비교하면 하체 쓰는 법이 많이 다르다. 하체를 쓰다 보니 힘이 좋아졌고, 변화수도 더 예리해졌다. 경기 풀어나가는 것도 괜찮다. 군대 가기 전과 달리 이제는 마운드에 올라도 긴장이 덜하다”고 언급했다.

가장 의욕적으로 캠프를 보내며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 박정수다.

박정수는 100개의 불펜피칭을 소화한 다음날에도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간단히 더 던져보고 싶다”고 불펜피칭을 자처했다가, 코칭스태프의 만류에 돌아서기도 했다.

박정수는 “올해 잘 해야 한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며 “내 자리에도 욕심을 내보겠다. 일단 완벽하게 내 몸을 갖는 것에 집중하고, 운동만 열심히 꾸준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시범경기 13일 오후 1시...KIA, 두산과 홈 대결

2018 KBO 시범경기가 오는 13일 오후 1시 챔피언스필드 등 5개 구장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시범경기는 10개 구단이 각 팀별로 4개팀과 2차전씩 8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이어진다.

KIA는 안방에서 두산과 시범경기 첫 대결을 벌인다. 시범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되지만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된 넥센전은 야간경기 적응을 위한 KIA 측의

요청으로 오후 5시 경기로 변경됐다.

시범경기는 각 구단이 스프링캠프의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 오는 24일 정규시즌 개막에 앞서 팀 전력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무대다.

육성선수를 포함한 엔트리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에 나갈 수 있고, 외국인 선수도 한 경기에 3명 모두 출전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당 평균 43.5명의 선수가 시범경기에 출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O 자동 고의사구 도입·비디오 판독때 중계화면 상영

올 시즌부터 KBO리그에 ‘자동 고의사구(四구)’가 적용된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8이리 발표한 2018 KBO 리그규정과 야구 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 시즌 자동 고의사구가 시행된다. 감독이 심판에게 고의사구 의사를 전달하면 투수가 투구를 하지 않더라도 심판이 불넷으로 인정한다.

포수가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다만 연장전이 진행될 경우 1회가 추가 허용된다.

투수의 준비 투구수는 이닝 교대 시간(2분), 투수 교체 시간(2분 20초)에 한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투수가 ‘12초룰’을 위반할 경우, 경기 이후 두 번째부터는 불판정이라는 규정에 벌금 20만원이 추가됐다.

또 감독이 필드에 나오지 않고 덕아웃에서도 비디오 판독 신청을 할 수 있고, 비디오 판독 시에는 구장 전광판에 중계 방송사 화면이 상영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